

# 中國韓民族僑胞言論의 始源攷

車 培 根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 I. 序言: 問題의 提起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수 많은 동포들이 中國 땅으로 건너가 살았다. 그러나, 近代的 集團流移民은 朝鮮朝 후기인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中國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族'이라는 명칭의<sup>1)</sup> 우리 동포들은 모두가 이때부터 시작, 日帝末까지의 기간에 中國으로 건너가 살게 된 사람들이나 이들의 자손이다. 이들 우리 동포들은 異國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僑民團體들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또한 잡지·신문·서적 등도 발행, 이들을 통하여 우리 民族 高유의 言語와 風習 및 民族精神을 유지, 발전, 계승시켜 왔다.

그렇다면 中國 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新聞·雜誌·出版 등을 통한 근대적인 言論活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中國의 朝鮮族言論史家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혹자는 1882년 瀋陽에서 英國 스코트랜드 장로회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에 의해 간행된 한글版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까지로 그 始源을 소급해 올라가는가 하면, 1909년 9월 滿洲 吉林

---

1) 中國 거주 韓人들에 '朝鮮族'이란 명칭은 1949년 중국에 中國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수립된 뒤부터 사용되었음.

省 局子街(現 延吉市)에서 창간된 「懇民教育會月報」를 손꼽기도 하며, 또는 1910년 7월 1일 역시 局子街에 나온 「大成團報」를 嚆矢로 보자는 사람도 있다.<sup>2)</sup>

그러나 中國, 특히 滿洲의 延邊 지역 朝鮮族言論史家들 간의 위와 같은 견해나 주장들과는 또 달리, 「皇城新聞」 1909년 2월 17일자 2면의 「我國報館의 種族」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보면, 1909년 2월 현재 上海에서 「泰東」이라는 신문이 발간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또한 「震光」誌 창간호(1934년 1월)에도 이 신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제호를 「泰東新報」라고 하면서 이를 上海 최초의 “韓人之華文月刊”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中國 땅에서 우리 동포들에 의해 처음 발간된 근대적인 新聞·雜誌 또는 出版物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나, 그 어떤 것이 嚆矢이든간에 중국에서 근대적인 韓民族言論의 역사는 1909년 9월 滿洲에서 「懇民教育會月報」가 창간되고, 그 이듬해 1910년 7월 1일 다시 「大成團報」라는 신문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다시 「韓族新聞」, 「新興學友報」, 「青年」, 「大震」 등의 각종 잡지와 신문들이 계속 나오므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최초의 新聞·雜誌 또는 出版物이나를 따지는 것은 대국적인 言論史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중요한 문제는 못된다. 또한 중국 땅에서 언제 무엇이 나왔던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느냐는 생각을 지닌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인 好奇心에서 보면, 어떤 것이 과연 그 嚆矢였는가를 하는 문제를 그냥 看過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무엇인가 釋然치 않은 感이 없지 않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이 문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嚆矢였다고 못박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이 始源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정리해 보겠다는 것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始源 문제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에 관한 충분한 史料들의 부족 때문에 어떤 것이 嚆矢였다고 못박기 어렵다는데에서 起因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始源 문제 자체에 관한 中國朝鮮族言論史家들의 연구논문은 없으나, 이들의 中國朝鮮族言論史에 관한 글들을 보면 그 효시로서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私席上의 論議에서도 각각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II. 書籍 등 單行本 出版物의 始源

방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 의한 근대적 韓民族 言論의 始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1882년 瀋陽에서 간행된 한글版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까지 그 始源을 소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째로 이 한글版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어떻게 해서 중국 땅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과연 이는 中國韓民族 言論의 始源일 수 있겠는가?

### 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그 發刊經緯

中國 境內에서 우리 한글로 1882년 간행된 최초의 출판물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英國 스코트랜드 장로회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馬勒泰)가 간행한 것으로서, 곧 우리 동포의 이름으로 발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한글로 된 것이었고, 그 제작은 거의가 우리 동포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이 성서의 발간 경위를 간단히 살펴 보면, 로스는 1872년부터 滿洲의 遼寧省 瀋陽에<sup>3)</sup>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대에 朝鮮 사람이 의외로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妹夫人 매킨타이어와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 출판하기로 하였다(中國 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1981, p.417). 그리하여 朝鮮人 청년 徐相崙, 白鴻俊, 李應贊, 李

3) 瀋陽은 淸나라 開國地인데, 淸代 이전에는 '候城縣', '瀋州', '瀋陽' 등으로 불려졌으나, 1626년 淸太宗(皇太極)이 즉위하면서 '盛京'이라고 고쳐 불렀음. 그후 1932년 日本이 그들의 괴뢰정부인 滿洲國을 세우고 이곳을 '奉天'으로 그 이름을 바꿨으나,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면서 다시 '瀋陽'으로 고쳤음. 그러나 그 뒤 漢字表記는 '沈陽'으로 하게 되었음. 瀋陽은 1636년 丙子胡亂 뒤 우리 나라의 奉林大君(孝宗) 人質로 끌려갔었고, 三學士도 끌려가 참형을 받았던 곳임.

成和, 金振起 등으로 하여금 聖經을 번역케 하였는데,<sup>4)</sup> 그 당시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韓國語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史家들에 의하면, 이들 朝鮮人 翻譯者들은 中文 聖經을 보고 번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中文本을 보고 번역하였든 또는 英文本을 놓고 직접 번역하였든, 아무튼 朝鮮人이 번역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한편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1881년 上海로부터 인쇄기를 구입해오고, 조선 사람들을 시켜 한글 木刻活字를 새기게 한 다음, 이를 日本 요꼬하마에 있던 스코트랜드 聖書公會의 릴리(Lilly) 선교사에게 보내 4만자의鉛活字를 주조해 왔다. 그리고 朝鮮人 植字工 金靑松과 중국인 인쇄공들을 채용하여(金良善, 1967, p.430) 1882년 초에 우선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인쇄, 출판하였다.

이렇게 하여 中國 境內에서 최초의 한글 출판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韓半島에서 서양의 근대적 출판술을 도입, 최초로 간행했던 한국의 『漢城旬報』(1883년 음력 10월 1일 창간)보다 한 해 빠른 것이었다. 또한 이는 日本에서 처음으로 1885년 李樹廷에 의해 번역되어 나왔던 한글 성서인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보다도 3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 2. 한글版 新約全書도 中國에서 처음 刊行

그 다음, 최초의 한글版 新約全書도 역시 중국 땅에서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위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 뒤이어 같은 해에 다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를 刊行하였고, 1883년에는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데자헝적』을 發行했으며, 1884년에는 『예수성교성서말코』

4) 沈陽市民委 民族志編纂辦公室 編, 『沈陽朝鮮族志』(中國沈陽: 遼寧民族出版社, 1989), p. 267 및 金良善,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白山學報』, 제 3호(1967), p. 430. 金良善의 논문에서는 이들 번역자들 중, 李成和는 李成夏, 金振起는 金鎮基로 표기되어 있으며,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上)』(1928年)에도 역시 김양선의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음. 한편,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上)』에 의하면 1867년 Macintyre 선교사가, 平北 義州로부터 入滿한 靑年 李度贊, 白弘俊, 李聖夏, 金鎮基 등 4명에서 滿洲 牛莊에서 洗禮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들 네 사람이 聖書를 번역했으며, 위의 『沈陽朝鮮族志』나 金良善의 논문에서의 李應贊은 '李度贊'의 誤記인 듯함.

복음』과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을, 1885년에는 또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서』를 出刊하였다.

그리고 1887년에는 이상의 모든 것들을 묶어 신약전서 『예수성교전서』를 드디어 完刊하였다. 그 刊記를 보면, “예수강세 일천팔백팔십칠년 광서 십삼년 성경 문광서원 활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성경’(盛京)은 그 당시 瀋陽의 이름이며, ‘문광서원’(文光書院)은 “아마도 그 때 로스 宣教師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되었던 인쇄소의 명칭이었거나 혹은 敎理서적을 판매하는 교회서점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思料된다”고 金良善(1967, p.403)은 말하고 있다. 이 『예수성교전서』는 최초의 한글版 新約全書로서, 속칭 ‘로스 번역본’(Rosso 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1900년 한국 聖書翻譯委員會의 『신약전서』가 나올 때까지 우리 나라 각지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한글版 聖書들의 간행을 과연 中國에서의 우리 韓民族 言論·出版史의 始源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들을 그 시원으로 보는데는 최소한 두 가지 전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데, 하나는 聖書의 출판물까지 言論·出版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定期刊行物부터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主導 아래 출판되었더라도 그것이 우리 한글로 출판되었으면 韓民族의 言論·出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부터 나와야 위와 같은 한글版 聖書들의 간행을 中國에서의 우리 韓民族 言論·出版史의 始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한글版 聖書들의 간행까지 中國韓民族言論의 역사를 소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곧 始源으로 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 III. 新聞·雜誌 등 定期刊行物の 始源

그러면 어떤 것을 시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定期刊行物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延邊 지역 中國朝鮮族言論史家들은 대체로 1909년 9월 滿洲 吉林省 局子街에서 창간된 「懇民教育會月報」이나 또는 그 다음해 7월 1일 역시 局子街에 나온 「大成團報」를 嚆矢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다 앞선 1909년 초 上海에서 이미 「泰東新報」가 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를 효시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泰東新報」는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창간된 어떠한 신문이었는가?

#### 1. 上海 「泰東新報」와 그에 대한 始源論

「皇城新聞」 1909년 2월 17일자 2면에 실린 ‘我國報館의 種族’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보면, “惟我大韓世界에 現在報館의 種族을 查閱하건대 國內에는 本皇城及帝國, 國民, 大韓, 京郷은 日報와 週報의 屬이오 大韓協會, 西北, 畿湖, 湖南, 教育은 月報의 屬이니 凡十二種이오 海外에는 東京의 大韓學報, 布哇의 合成, 韓人敎會, 桑港의 共立, 大同, 海港의 大東, 上海의 泰東이니 凡七種이라”고<sup>5)</sup> 그 당시 國內外 우리 신문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끝으로 ‘上海의 泰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논설에 의하면, 1909년 2월 현재, 「泰東」이라는 신문이 이미 上海에서 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5) 「皇城新聞」 1909년 2월 17일자 2면, 논설 ‘我國報館의 種族’. 이 논설에는 당시의 言論觀이 잘 나타있으므로 그 全文을 뒤에 부록으로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람.

## 1) 「泰東新報」에 대한 記錄들

「皇城新聞」에서는 위와 같이 그 신문을 그냥 「泰東」이라고만 했으나, 그 정확한 題號는 「泰東新報」였는데, 이는 「震光」誌(중문판)의 창간사를 보면 알 수 있다. 「震光」는 1934년 1월 중국 杭州에서 震光社의 명의로 발간된 韓國獨立黨의 機關誌(月刊)로서 國文版과 中文版를 각각 발행했는데,<sup>6)</sup> 그 中文版 창간호(1934. 1월호)를 보면, “震光創刊所感”이라는 제목의 창간에서, 중국에서의 우리 僑胞紙·誌들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申亥革命以前韓人之華文月刊在上海, 有泰東新報者始放呱呱之聲, 遐邇同黨喜得其名, 并祝其壽而 有實不幸東續於一月之暫”이라고<sup>7)</sup>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중국의 申亥革命(1911년) 이전에 중국 上海에서 「泰東新報」라는 제호의, 중국어로 된 月刊新聞(또는 잡지)가 韓國人에 의해 처음 발행되었으나, 1개월 정도 발행하다가 폐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皇城新聞」 1909년 2월 17일자 논설에서 언급한 「泰東」이라는 신문에 틀림없다.

한편 위에서 말한 「皇城新聞」의 논설보다 약 1년전인 1908년 3월 13일자 同新聞의 雜報欄을 보면, ‘上海刊報’이라는 제목으로, “上海에 留駐하는 張弘法氏 등이 發起하여 新聞을 刊行한다는데 本國人和 淸國人 購覽者에게 便利키 爲하여 一片은 國文으로 一片은 純漢文으로 發刊한다

6) 「震光」誌는 1934년 1월 25일자 창간호로부터 1934년 9월 25일자 제6호까지 발간되었는데, 이들 중 국문판 제1호(素昂文類 No. 569)와 중문판 제1호(同文類 No. 570), 국문판 제2, 3합간호(同文類 No. 575), 국문판 제4호(同文類 No. 576) 및 국문판 제6호(同文類 No. 577)는 三均學會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影印本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집(1988)에 실려 있음. 한편 중문판 제1호와 제4, 5합간호는 중국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영인본은 국가보훈처편, 『海外韓國獨立運動史料』, 제7집 중국편 ③(1993년刊)에 실려 있음.

7) “申亥革命 以前에 上海에서 韓國人 발행의 華文(중국어) 月刊으로서, 「泰東新報」라는 것이 있어 처음 呱呱의 聲(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오면 우는 소리)을 발하자 원근(遐邇)의 같은 무리(同黨)들이 그 이름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아울러 그 탄생을 축하했으나, 실로 불행하게도 1개월의 잠시동안만 속광(수명을 이음)하였다.”

라”고 報道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는 그 다음 날짜(1908년 3월 14일) 「大韓每日申報」雜報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申報」에서는 ‘上海刊報’라는 제목 대신 ‘上海新聞’이라고 하였고, 그 내용 중 “便利키 爲하야”가 “便利하기 爲하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그 전날 「皇城新聞」의 위의 記事 내용과 똑같다.<sup>8)</sup>

그러면 이들 두 신문의 記事에서, “上海에 留駐하는 張弘法氏 등이 發起하야 刊行”하였다는 것은 어떤 신문이었을까. 그 題號를 명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는 「泰東新報」에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泰東新報」가 아닌, 별개의 다른 신문이었다면, 그 이름도 위의 「皇城新聞」 논설에서 언급되었을 것인데, 상기 논설에서는 「泰東新報」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만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하여 확인할 수는 없다.

## 2) 張弘法 등에 의한 新聞의 발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미 1908년 3월경 張弘法氏 등이 上海에서 新聞을 刊行했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 해 주는 또 하나의 史料로는, 大正 6년(1917년) 朝鮮總督府 발행의 『朝鮮ノ保護及併合』이라는 제목의 문서, 제1장 제11절 <부록 1> ‘在上海韓人’를 들 수 있다. 즉 이 문서를 보면, “徐相潤, 丁丙彩의 兩人은 明治 40년(1907) 11월 張鴻法과 모의, 上海에서 大韓人大同保國會 창설 당시의 發起者이다. 徐는 상업에 종사하며 排日의 언론활동을 하였으며, 丁은 無職으로 종종 韓土(한국)에 드나들었는데 다소 [排日의] 혐의가 있다. 張鴻法은 大韓人大同保國會(明治42년 여름 자연 廢滅)을 창설하여, 明治 41년(1908) 6월 大韓每日新聞 社長 ‘배설’이 범죄를 저질러 英國軍艦으로 上海에 압송되어 오게 되었을 때, 張은 그(배설)에 대한 환영행사를 계획, 일반 韓國人에게 勸誘狀을 배부하는 등, 排日活動을 하여 감시가 엄하게 됨에 이르자 同年 11월 돌연 新義州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 그는 排日派에 속함을 알 수 있

8)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14일자 ‘雜報欄’: “上海新聞 上海에 留駐하는 張弘法氏 등이 發起하야 新聞을 刊行한다는디 本國人和 淸國人 購覽者에게 便利하기 爲하야 一片은 國文으로 一片은 純漢文으로 發刊한다더라”.



다”(金正明, 1964, p. 301)고 서술해 놓고 있다.

日帝의 이 문서에서는 張弘法을 ‘張鴻法’으로 표기하고 있어 어떤 것이 정확한 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기록을 볼때, 張弘法은 徐相潤, 丁丙彩 등과 같이 신문을 간행한 것 같다. 따라서 “上海에 留駐하는 張弘法氏 등이 發起하여 新聞을 刊行한다는데...”라는 상기 「皇城新聞」(1908. 3. 13)과 「大韓每日申報」(1908. 3. 14)의 보도기사에서 “張弘法氏 등”은 바로 張弘法, 徐相潤, 丁丙彩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日帝의 기록을 보면, 이들 張弘法, 徐相潤, 丁丙彩 등은 1907년 11월 上海에서 大韓人大同保國會 창설하여 排日 언론활동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는 곧 新聞의 刊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日帝의 기록과 1908년 3월 “張弘法氏 등이 發起하여 新聞을 刊行했다”는 상기 「皇城新聞」(1908. 3. 13)과 「大韓每日申報」(1908. 3. 14)의 보도기사에서의 그 新聞의 발간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新聞은 大韓人大同保國會의 기관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상해 大韓人大同保國會의 본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大同保國會에서도 1907년 10월 3일부터 「大同公報」라는 기관지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張弘法은 張景과 同一人(崔起榮, 1991, p. 194)으로서, 그는 1907년 3월 미국 南加洲 로스앤젤레스의 파사디나(Pasadena)에서 安昌浩의 共公協會에 대항하고자 大同保國會를 결성, 그 중앙총무직을 맡고 있다가 그해 8월경 상해로 건너와 그 해 11월 24일 大韓人大同保國會를 청설(본부는 上海愛以近路 均益里 5街 114號)하였는데, 이 단체는 미국 大同保國會의 上海支會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張弘法은 상해에서도 大韓人大同保國會를 결성하자, 미국의 大同保國會에서와 마찬가지로 곧 그 기관지를 발행, 이를 통하여 排日活動을 벌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예컨대, 1908 6월 大韓每日新聞社長 裴說이 英國 당국에 의해 上海에 압송되어 왔을 때는, 그 사실도 보도하여 그곳 韓國人에게 배부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이처럼 張弘法氏 등이 1908년 3월경 상해에서 발간하여 排日 활동을 벌인 이 新聞은 언제까지 얼마동안이나 발행되었는가. 그 기간은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기 日帝 문서를 보면, 張鴻

法은 明治 41년(1908년) 6월 大韓每日新聞社長 裴說을 위한 환영행사를 벌이다가 그곳 日本官憲의 감시가 엄하게 되자, 同年 11월 돌연 新義州로 도피했다고 하고 있으며, 大韓人大同保國會는 1909년 여름 자연 '廢滅'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張弘法 등의 新聞과 「泰東新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皇城新聞」(1908. 3. 13)과 「大韓每日申報」(1908. 3. 14)의 보도기사 및 日帝의 문서로 미루어 볼 때, 1908년 3월경 張弘法 등 우리 韓國人들이 상해에서 신문을 낸 발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신문의 題號는 무엇이었는가?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신문은 바로 상기 「皇城新聞」 논설(1909. 2. 17일자 2면, '我國報館의 種族')과 「震光」誌(중문판) 창간호(1934. 1) 창간사에서 말한 「泰東新報」임이 거의 틀림 없는 것 같다.

그 중요한 이유는, 張弘法 등이 1908년 3월경 발간하였다는 신문이, 만약 「泰東新報」가 아닌, 별개의 다른 신문이었다면, 그 이름도 위의 1909년 2월 17일자 「皇城新聞」 논설에서 언급되었을 것이나, 同 논설에서는 다만 「泰東新報」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張弘法 등이 발간했던 신문이 곧 「泰東新報」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상기 「皇城新聞」 논설에서는 “惟我大韓世界에 現在報館의 種族을 查閱하건대”라고 하여, 그 당시, 즉 1909년 2월 현재 발간되고 있던 신문만 열거했을 수도 있어, 만약 「泰東新報」가 그 이전에 이미 폐간되었다면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張弘法 등이 발간했다는 신문이 곧 「泰東新報」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데, 첫째로 「震光」誌 창간사에서는 「泰東新報」를 “韓人之華文月刊”이라고 했으나, 「皇城新聞」(1908. 3. 13)과 「大韓每日申報」(1908. 3. 14)의 보도기사에서는 張弘法 등이 刊行한 신문은 “本國人과 淸國人 購覽者에게 便利키 爲하야 一片은 國文으로 一片은 純漢文으로 發刊하더라”고 하여, 國文版과 中文版을 각각 냈다고 말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震光」誌에서는 「泰東新報」를 “1개월 정도 밖에 이어지지 못

했다”고 했으나, 1909년 2월 17일자 「皇城新聞」논설에서는 “現在報館의 種族을 査閱하건디”라고 하면서 상해의 「泰東新報」가 그 당시에도 발간되고 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泰東新報」의 창간시기는 1909년 1월경이 되므로, 「泰東新報」는 1908년 3월경 발간했다는 張弘法 등의 신문과는 별개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앞서의 日帝 문서에 의하면, 張弘法 등이 1908년 3월경 창간했던 신문은 불과 몇개월 밖에 발행되지 않은 것 같으나, 1909년 2월 17일자 「皇城新聞」논설에 언급한 「泰東新報」는 그 당시에도 발간되고 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張弘法 등에 의한 신문은 「泰東新報」보다 먼저 나왔다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신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상기 「震光」誌의 창간사에서 「泰東新報」을 “申亥革命(1911년) 이전, 上海에서 韓國人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泰東新報」에 앞서 1908년 3월경 張弘法 등이 발간한 또 하나의 별개 신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泰東新報」은 최초의 中國僑胞紙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皇城新聞」논설(1909년 2월 17일자) 논설 및 「震光」誌(중문판)의 창간사에서 언급된 「泰東新報」와 그 이듬해 3월 「皇城新聞」와 「大韓每日申報」에서 張弘法 등이 1908년 3월경에 발간했다고 보도한 신문이 同一紙였는지, 또는 별개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史料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皇城新聞」와 「震光」誌에 나타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1909년 2월경 상해에서 이미 우리 동포들에 의해 「泰東新報」라는 신문이 발행되었던 것은 거의 의심할 수 없는데, 이는 현재 중국의 일부 韓人僑胞言論史家들에 의해 중국 땅에서 나온 僑胞紙·誌의 효시로 간주되고 있는 「墾民教育會月報」(1909년 9월경 창간)보다 최소한 7개월이나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墾民教育會月報」보다는 「泰東新報」를 중국 교포언론의 효시로 보아야 할 줄 안다.

그러나 다만 그 창간시기가 앞섰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효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신문이나 잡지가 그 해당 국가 사회나 지역 言論史에서 효시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중국 상해에서 1909년 2월경에 나온 「泰東新報」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섰지만, 그 보다 조금 뒤인 같은 해 9월 滿洲 北間島의 局子街(현 延吉市)에서 나온 「懇民教育會月報」을 중국 僑胞言論史에서의 효시적인 定期刊行物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 「懇民教育會月報」와 그에 대한 始源論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中國朝鮮族 言論史家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懇民教育會月報」보다 그 이듬해 7월 1일 창간된 신문인 「大成團報」를 中國韓民族 言論史의 始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 중요 이유의 하나는, 「懇民教育會月報」는 會員을 주대상으로 한 月刊 雜誌 형태의 會報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懇民教育會月報」는 누구에 의하여 왜, 어떻게 창간되어 언제까지 발행된 어떠한 종류의 定期刊行物이었는가?

### 1) 懇民教育會의 創立背景과 目的

「懇民教育會月報」는 현재 실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그 창간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발간한 懇民教育會의 창립 배경과 목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懇民教育會는 언제, 왜, 어떻게 결성된 어떠한 성격의 단체였는가?

#### (1) 懇民教育會 創立 당시의 時代的 狀況

懇民教育會의 창설 목적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우선 그 당시의 時代的 狀況부터 살펴 보면, 1905년 日帝는 강제로 大韓帝國과 韓日協約(乙巳保護條約 또는 乙巳五條約)을 체결하고 統監府를 설치,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日帝 지배의 손길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海外에서 항일운동의 基地를 마련하려는 독립지사들까지 합쳐,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이 특히 北間島의 延邊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4년에는 약 5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延邊의 우리 동포들의 수가 1909년에는 그 3.5배인 18만4천8백67명으로 증가하였다.(『延吉廳同志呈所管各事宜選具清冊』中 “延邊地區檔案史料選編之一”, p.11) 이처럼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이 日帝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滿洲로 건너갔건만, 日

帝의 魔手는 곧 그곳까지 뻗혀 오기 시작하였다. 露日戰爭에 승리한 日本은 1907년 7월 30일 러시아와 日露秘密條約(제1차 밀약)을 체결, 滿洲 북부를 러시아의 세력 범위로 정하는 대신, 남부는 저들의 세력 범위로 멋대로 정하였다.(『日本外交年表及主要文書』pp. 280~282. 朝鮮族簡史編寫組, 1986, p.19에서 재인용)

그리고 滿洲 침략의 '뒷문'이라고 할 수 있는 延吉을 통해, 1907년 8월 20일 日本軍 사이토(齋藤) 중좌가 61명의 군경을 거느리고 龍井村에 들어섰으며, 이들은 그 이틀 뒤인 23일 "間島 韓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朝鮮統監部間島派出所'란 간판을 내걸었다. 이를 중국에서 '間島問題' 또는 '間島事件'이라고 일컫는데, 이 사건은 全中國 국민 의 의분을 자아냈다.

8월 24일 淸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 "龍井은 중국의 延吉廳에 소속된 확실한 중국영토이다"라고 항의하였다.(『外務省警察史』, 朝鮮族簡史編寫組, 1986, p.19에서 재인용) 한편 東三省總督 徐世昌은 吳錄禎을 吉林邊務防官으로 임명, 延邊에 가서 日軍과 교섭토록 지시하였다. 吳錄禎은 즉시 日本軍 책임자 사이토를 찾아 가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당시 日本에 체류 중이던 孫文도 이 '間島事件'의 소식을 듣자, 廖仲凱를 吉林에 파견토록 하여 吳錄禎과 함께 日帝 침략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東北人民革命鬪爭史』, 1960, p.197)

## (2) 都社長制 반대와 懇民自治會의 組織

중국측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日帝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다스리게 한다"는 명목의 소위 '都社長制'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都社長制란 朝鮮人들의 관할을 위한 행정기구로서, 間島를 4개 區, 즉 北道所, 會寧間島, 鏡城間島, 茂山間島로 나누어, 각 間島에 都社長 1명과 그 밑에 社長, 村長 등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朝鮮人들을 관리케 하는 제도였는데, 日帝는 이들 都社長, 社長, 村長에 모두 親日派 조선인들을 임명하여 우리 동포들을 감시, 통제케 하였다.<sup>9)</sup>

9) 上記 4개 區의 都社長은 각 區에 1명씩 모두 4인이었으며, 그 밑의 社長은 초기에는 모두 25인이었으나, 뒤에는 41명까지 증가되었으며, 村長은 처음에는 153명을 두었으나, 뒤에는 290명까지 늘어났다.

이와 같은 都社長制는 중국의 지방행정조직을 완전히 무시하고, ‘分而治之’와 ‘以韓制韓’의 정책을 통하여 朝鮮民族을 분열시키면서 朝鮮人들로 하여금 朝鮮人들을 통제토록 하기 위한 日帝의 악랄한 제도였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시되자, 곧 延邊 지구의 朝鮮人 애국지사와 知識人들은 演義會를 열고, “間島는 중국영토”라고 주장하며 日帝의 都社長制 실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고 대표자들을 뽑아 吉林巡撫淸愿에 보내, “朝鮮人은 중국 정부의 관할을 원하며, 日本의 보호를 바라지 않는다”는 意思를 전달하였다.

한편 都社長制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朝鮮人들의 結集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金躍淵, 李同春 등의 애국지사들은 墾民自治會<sup>10)</sup>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그 조직에 착수, 朝鮮人 촌락들을 遊說하며 그 조직 사업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日帝의 誣告로 淸나라 관헌 당국에서 이를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자, 李同春, 金立 등은 그 명칭을 ‘懇民教育會’로 바꾸고 淸나라 관헌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펴나가기로 하였다.

### (3) 懇民教育會의 創立과 事業活動

그리하여 淸나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 1909년 7월 局子街에서 墾民教育會를 정식으로 결성하게 되었다. “전체 北間島 지구의 墾民自治를 실시하여 산업을 진흥시키고 反日民族獨立運動을 추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中國 최초의 韓人僑民團體였던 이 墾民教育會는<sup>11)</sup> 그 본부를 局子街에 두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李東春,<sup>12)</sup> 支會長에는 曹起貞, 評議長에는

10) 墾民이란 開墾民의 준말로서, 당시 間島를 개간한 것은 우리 동포들로서 墾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朝鮮人들을 지칭하였음. 따라서 墾民自治會로 命名하였던 것 같음.

11) 懇民教育會에 관한 이 부분은 金仁哲, “延邊第一個社會團體: 墾民會”, 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 및 延邊朝鮮族自治州政協文史資料委員編, 『吉林朝鮮族』(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3), pp. 140-141에서 많이 참조하였음.

12) 墾民教育會의 주요 창건자인 李東春은 당시 延邊 지역 朝鮮人들 중에서 걸출한 교육가와 민족독립운동의 선구자였음. 그는 본래 咸鏡北道 會寧에서 1873년에 출생, 일찍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中國語에 능통하여 일찍이 淸朝의 漢城駐在使臣處의 통역과 그 후 중국 東南路 觀察使公署의 고급관원을 역임한 바 있어, 중국인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교육사업에도 진력, 養正學

孫運順, 掌簿長에는 許坤, 贊理員에는 尹海였고, 총회원 수는 300여명에 달하였다.

墾民教育會는 곧 이어 北間島 각 지역에 支會를 설립하여, 동포들에게 民族意識과 反日思想을 주입시키고, 抗日民族獨立運動을 전개하면서 朝鮮同胞들을 선도하였다. 또한 朝鮮族 촌락에 모범적 농촌활동을 전개, 朝鮮人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을 동원, 道路를 보수하고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했으며, 夜學을 통하여 문맹퇴치운동도 전개하였고, 農村 마을에 殖産會와 생산조합, 판매조합, 소비조합 등을 조직, 농민들의 수입 증대에 노력하였다.

한편 延邊 지구의 각 社에 1명씩의 墾民教育會 勸學委員을 두어, 일반 집에서는 매호 1文씩, 부유한 집에서는 5문에서 1백 文씩의 교육회비를 징수하고, 또한 地稅, 土地賣買稅 등도 거두어 墾民教育會의 비용과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였다. 墾民教育會는 특히 민족교육 사업에 진력하였던 바, 局子街에 墾民模範學堂을 세워, 그 안에 小學과 직업교육을 위한 농촌학교 및 臨時教師養成所를 두어 운영하였다. 臨時教師養成所에서는 16-25세 학생들을 선발, 1년간 교육시킨 뒤 각지의 朝鮮族 私立小學校 교원으로 배치하였는데, 朝鮮族小學校들에서는 군사교육도 실시, 抗日武力運動을 준비하였다. 또한 桂琿禹 등의 學者들을 초빙, 反日教育用 課本(교과서)도 편찬하였다.

## 2) 「墾民教育會月報」의 創刊趣旨와 全貌

그리고 1909년 9월에는 「月報」도 창간하였는데, 그러면 이 「墾民教育會月報」의 창간취지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형태의 刊行物이었으며, 주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언제까지 몇 號나 발행되다가 廢刊되었는가?

### (1) 「墾民教育報」의 創刊趣旨와 內容

創刊號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창간취지는 알 수 없으나, 吉林人民出版社刊 『吉林朝鮮族』와 延邊人民出版社刊 『朝鮮族簡史』를 보면, 다같이 “墾民教育會에서 「月報」를 創辦, 청년들에게 反日을 호소하고 新學을 제창하였다”(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 및 延邊朝鮮族自治州政協文史資料委

堂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서기도 하였음.

員編, 1993, pp.140-141 및 朝鮮族簡史編史組編, 1986, p.236(漢語版))고 記述하고 있다. 따라서 「懇民教育會月報」의 창간 목적은, 그 당시 間島 지역 우리 同胞, 특히 청년들에게 反日思想을 고취하고 새로운 學問과 文化를 보급시키는데 있었다고 보겠다.

創刊號 뿐 아니라, 그밖의 實物들도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며, 또한 이에 관한 자세한 記錄도 부족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創刊趣旨나 목적으로 미루어볼 때, 「懇民教育會月報」의 주요 내용은 反日思想을 고취하기 위한 논설들과 새로운 西洋 學問과 文化에 관한 글들을 주로 실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그 體制나 형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月報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懇民教育會月報」는 신문은 아니었으며, 雜誌 형태의 간행물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쇄는 謄寫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당시 延邊에는 活版印刷施設이 제대로 갖추어진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長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활판인쇄를 해 왔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懇民教育會月報」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내용이나 체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題號가 단순히 「月報」였는지, 아니면 「懇民教育會月報」였는지, 또는 「懇民教育會報」였는지조차도 분명치 않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題號를 그냥 「月報」라고만 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실제의 정식 제호는 무엇이 있을까?

## (2) 「懇民教育會月報」의 정식 題號는?

吉林人民出版社刊 『吉林朝鮮族』에서는 “懇民教育會에서 「月報」를 創辦, 청년들에게 反日을 호소하고 新學을 제창하였다”(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 및 延邊朝鮮族自治州政協文史資料委員編, 1993, pp.140-141)고 했고, 朴文一(1993, p.290)도 역시 그의 논문에서 “1909년 이동춘, 김립 등은 국자가에 간민교육회를 창설하고 「월보」를 발행했으며...”라고 하면서 그 제호를 「月報」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吉林東南路兵備道觀察使署의 기록에는 “1909년 9월, 李同春의 발기로 懇民教育會가 건립되었으며, 月報까지 발간하였다”고(朴昌昱,



1993, p.248에서 재인용) 하였고, 延邊人民出版社刊 『朝鮮族簡史』에서는 “李同春 등이 局子街에서 「懇民教育會月報」를 설립, 月報를 발행하여 反日을 주장하고 新學을 제창하였다”(朝鮮族簡史編史組編, 1986, p.236(漢語版))고만 하여 그 정식 제호가 「月報」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월간으로 발행한 會報였다는 뜻인지 명확치 않다.

그렇다면, 그 제호가 단순히 「月報」였는가, 아니면 「懇民教育會月報」였을까?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題號를 그냥 「月報」라고만 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호가 「懇民教育會月報」였거나 혹은 다른 명칭의 제호가 있었으나, 이를 간단히 그냥 「月報」라고 불렀거나 또는 月刊으로 나온 會報라는 뜻에서 일반적으로 「月報」라고 부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本書에서는 편의상 이를 「懇民教育會月報」라고 부르겠는데, 그냥 「月報」라고 하면, 보통 명사인 「月報」, 즉 월간으로 나오는 會員用 잡지나 신문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는 그 정식 題號가 무엇이었느냐가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의 편의상 呼稱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 3) 懇民教育會와 그 「月報」의 그 후

한편 「懇民教育會月報」가 언제까지 몇 號나 발행되다가 언제 廢刊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발간된 것 같지는 않은데, 懇民教育會는 1913년 3월 懇民會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 3월 12일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며 우선 懇民教育會가 어떻게 하여 懇民會로 되었다가 언제 왜 懇民會가 해산되었는가부터 살펴 본 뒤에 다시 「懇民教育會月報」의 발행기간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1) 懇民教育會의 懇民會로의 再發足

위에서 보았듯이, 懇民教育會는 1909년 7월 정식으로 결성되어 民族教育의 발전과 抗日運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던 중, 1911년 중국에서 辛亥革命으로 清朝가 무너지고 그 이듬해 정월 中華民國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懇民教育會에서는 李東輝, 鄭載冕, 朴贊翊 등 4인을 파견, 黎元洪 부총통에게 혁명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延邊 지구의 朝

鮮族 사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朝鮮인들이 墾民自治會를 조직, 韓中간의 友誼를 촉진하겠으니 民國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黎元洪은 찬성하면서 다만 ‘自治’라는 두 글자는 빼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자 李東輝, 鄭載冕, 朴贊翊 등은 延邊으로 돌아 와, 1913년 3월 金躍淵, 李東春, 金立, 都成, 張基永, 白玉甫 등과 함께 局子街에 모여, 墾民教育會를 새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墾民會로 고쳤다. 그리고 李東輝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으나, 그가 露領 沿海州로 떠나게 되자, 金躍淵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으로는 金永學, 총무로는 鄭載冕을 선출했다.

한편 그 아래 法律, 教育, 交涉 등 12개부를 설치하고, 각 부의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墾民會의 본부는 局子街의 교육회관에 두었으며, 본부에는 법률, 교육, 교섭 등의 課를 설치하고 또한 각지에는 總會와 지부를 설치하였다.

## (2) 中國延吉官府에 의한 墾民會의 해산

이렇게 새로 발족한 墾民會는 그 宗旨로서 “중국의 법률과 교육의 연구 및 墾民과 중국 官府 사이에 발생하는 사항들의 처리” 등을 내세웠으나, 진정한 목적은 反日과 교육 활동의 전개였다. 그리하여 反日活動의 하나로 朝鮮墾民들의 입회활동을 전개하면서 日帝의 都社長制에 의한 보호보다는 중국에 歸化入籍을 주장하면서 僑胞들로 하여금 중국에 歸化入籍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儒林派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던 또 하나의 교민단체였던 孔敎會에서는 墾民會의 歸化入籍 운동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農民契를 조직, 墾民會와 대립하였다. 그 즈음 중국의 鄉約(鄉의 책임자)과 牌頭(村의 책임자)들이 朝鮮인들의 歸化入籍費를 횡령 사건이 일어나, 1914년 1월 7일 朝鮮農民들이 그에 대한 항의 투쟁을 벌이자, 초기에는 墾民會에 호의적이었던 延吉 지방관부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龍井의 日本領事館에서 延吉官府에 墾民會를 해산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자, 그해 3월 12일 延吉官府에서는 墾民會와 孔敎會 農民契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墾民會는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면 「墾民教育會月報」는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서 보았듯이, 墾民

會는 1914년 3월 12일 해산되었으므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墾民教育會月報」가 발간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墾民會의 해산과 함께 폐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墾民教育會月報」는 길어야 1914년 3월 12일까지 약 5년 동안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폐간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왜냐하면 새로 발족되었던 墾民會에서도 「月報」를 발간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墾民教育會月報」는 墾民教育會가 墾民會로 재발족되기 이전에 폐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제 廢刊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4) 「墾民教育會月報」의 始源論에 대하여

비록 그 이전에 이미 上海에서 「泰東新報」가 발간되었다고도 하나, 특히 만주 지역의 朝鮮人 言論史家들은 일반적으로 「墾民教育會月報」를 중국에서의 우리 교포언론의 효시로 보아왔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墾民教育會月報」의 실물은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며, 또한 그에 관한 자세한 기록도 부족하여,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刊行物이었으며, 언제까지 몇 號나 발행되다가 廢刊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그 공식 題號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墾民教育會月報」보다 그 이듬 해 나온 「大成團報」를 朝鮮族言論의 始源으로 보자는 言論史家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墾民教育會月報」는 중국 만주 지역의 우리 동포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간되었던 定期刊行物로서, 그 당시 間島 지역의 우리 朝鮮同胞, 특히 청년들에게 反日思想을 고취하고 새로운 學問과 文化를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僑民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에도 이바지했으며, 1919년 3.1운동 때는 北間島 지방의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墾民教育會月報」를 시작으로 해서 만주 지역에서도 각종 신문과 잡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韓民族言論이 그 생성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墾民教育會月報」는 중국의 韓民族言論史에서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墾民教育會月報」는 일종의 月刊 會報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보다는 그 이듬해 나온 「大成團報」를 효시로 보자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면 일단 「大成

團報」에 대하여 살펴 본 뒤에 다시 어떤 것을 호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3. 「大成團報」와 그에 대한 始源論

「大成團報」는 1910년 7월 1일 역시 北間島의 局子街(현 延吉市)에서 창간되었는데, 그 창간 주동자는 李同春이었다. 李同春(1872-1940)은 앞에서 보았듯이 墾民教育會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墾民教育會月報」도 발간했던 애국지사였다. 그는 韓日合邦 이후 北間島로 건너 온 安昌浩, 李東輝, 安重根 등 애국지사 300여명을 局子街의 자기 집에 유숙시키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집을 墾民教育會의 회관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으며, 金立, 尹海, 李鳳雨 등과 함께 局子街의 小管子村에 光成講習所를 세우고 조선 청년들에게 계몽교육을 실시, 抗日獨立 人材를 양성하였다.<sup>13)</sup>

#### 1) 「大成團報」의 創刊과 그 創刊趣旨

이러한 李同春은 祖國의 독립을 쟁취하려면 우선 민중을 각성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무기는 新聞이라고 생각, 朴昌善, 朴文庸 등의 유지 인사들과 더불어 23인의 發起人會를 구성하고 신문 창간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7월 1일 「大成團報」를 창간하였는데, 그 創刊號에서 밝힌 이 신문의 발간취지와 使命은 아래와 같다.

“「大成團報」는...中韓 輿論의 대표로서 社會教育의 源泉이 되며 勸善懲惡의 機關으로서 忠言善道의 新生活를 期하며 政客의 顧問으로서 社會의 模範이 되며 善良한 백성의 福音으로서 拔吏의 閻羅大王이 된다. 누가 우리 同胞를 해치면 正義公道로써 꾸짖고 저녁북과 아침 종으로 되어 우리 동포를 깨우쳐 준다. 政策의 軌道에서 벗어나는 者가 있으면 당면에서 꾸짖으며 죽는 限이 있더라도 굽어들지 않는다. 社會의 失敗한자가 있으면 꼭 밝은 爭論과 가벼운 풍파로써 善하게 되도록 이끈다. 또한 海外 政治的인 변화에 대한 傳聞과 지방백성들의 政情을 臆하지 않고 수시로 신는다. 엄연히 나라의 기둥이 되며 초연히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 세찬 바람과 우뢰가 된다.” (延

13) 李東春은 이러한 功勞로, 大韓民國 정부에서 196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그리고 1977년에는 建國褒章을 추서하였음.

邊朝鮮族自治州保管書類, 『李同春等呈請設立報館』)

이와 같은 創刊趣旨에는 직접적으로 밝히는지 않았으나, 「大成團報」의 중요 창간 취지의 또 하나는 抗日民族思想의 고취였다고 볼 수 있는데, 李東春이 懇民教育會의 회장으로 있을 때 발간했던 「月報」도 그 당시 間島 지역 우리 朝鮮同胞, 특히 청년들에게 反日思想을 고취하고 새로운 學問과 文化를 보급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도 짐작할 수 있는데, 1909년 9월 4일 日帝는 清朝 정부와 이른바 ‘間島協約’, 즉 ‘圖們江中朝邊務條項’을 체결, 間島를 자기들 멋대로 중국에 할양하고, 龍井의 朝鮮統監府 間島派出所와 그 관원을 철수시키는 대신, 間島駐在日本總領事館을 설치하고 그 분관과 경찰서를 局子街, 面草溝, 頭道溝, 龍井 등 네 곳에 설치하는 한편, 延邊에서의 영사재판권까지 얻어냈다. 또한 吉會線(會寧→吉林)과 管口 철도의 부설권을 얻었으며, 安奉(安東→奉天) 철도의 개수권 및 撫順과 烟台의 석탄채굴권도 얻어내서 滿洲 침략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帝는 都社長制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社長과 村長의 수를 늘리는 한편, 親日派 조선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 우리 동포들을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抗日鬪爭과 민족사상의 고취도 「大成團報」의 중요한 창간 목적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 2) 「大成團報」의 內容과 組織 및 運營

「大成團報」는 그 創刊號에서 밝힌 위와 같은 발간취지와 使命의 실천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10개 주제, 즉 論說, 小說, 演說, 教育擴張, 産業開發, 政治改善, 法律公平, 歷史地理, 內報外報, 官報雜報 및 小說로 구성되었다.(延邊朝鮮族自治州保管書類, 『李同春等呈請設立報館』)

바로 이러한 주제의 각종 記事들을 통하여 「大成團報」는 그 발간취지대로 政治政勢를 논평하고, 낡은 封建因習을 비판하고, 근대문명을 선양하고, 권선징악과 正義公道를 주장하면서 탐관오리와 사회부패상을 타도

하였으며 산업개발을 권장하고 문화교육의 진흥에 진력하면서 抗日民族史上을 고취하였다.

1911년 辛亥革命 후 北洋軍閥 정부에서 外國人의 토지사용권을 몰수한다는 법령을 공포, 朝鮮移住民들의 토지도 모두 몰수 당하게 되자, 「大成團報」는 그 법령의 부당성을 통박하였다. 李同春은 직접 袁世凱를 찾아가서 그 법령을 철회하도록 하고 朝鮮人들은 ‘墾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사용권을 합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大成團報社의 조직구조를 보면, 總裁 아래 長, 總理, 主筆, 庶務, 書記 및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두었다. 총재는 신문사를 統括하고, 長은 신문사를 대표하여 중요 사무를 管掌하며, 총리는 총재와 長을 보좌하여 일상 사무를 처리하고, 주필은 首席記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書記와 사무원들은 庶務와 經理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大成團報社는 股金制(일종의 株主制)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데, 1股를 10元으로 정하여, 1~10股까지의 股主는 매년 초에 그 慈善行蹟을 紙面에 公布했으며, 11~100股까지의 股主는 매달 초에, 101~1000股까지의 股主는 매일 그 자선행적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1~7원까지의 보조자는 다만 그 이름만 공포하였다.

### 3) 「大成團報」의 始源論에 대하여

위에서 보았듯이, 「大成團報」는 그 체제도 신문 형태였을 뿐 아니라, “中韓 輿論의 대표로서 社會教育의 원천이 되며 勸善懲惡의 機關으로서 忠言善道의 新生活를 기하며 政客의 顧問으로서 사회의 模範이 되며 善良한 백성의 福音으로서 拔吏의 閻羅大王이 된다”고 그 발간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명실상부한 新聞紙였다. 또한 어떤 단체의 機關紙가 아니라,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言論機關에 의해 발행된 신문이었다.

이에 비하여 앞서의 「懇民教育會月報」는 會員을 주대상으로 한 月刊雜誌 형태의 機關誌, 즉 會報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懇民教育會月報」보다 「大成團報」를 中國韓民族言論史의 始源으로 잡자는 견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그것이 月刊雜誌 형태의 會報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懇民教育會月報」가 만주 땅에서는 우리

동포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定期刊行物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어떻든, 1910년을 전후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泰東新報」, 「懇民教育會月報」, 「大成團報」가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中國韓民族言論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뒤이어 특히 滿洲에서 다시 여러 개의 신문과 잡지들이 나왔다. 1911년에는 耕學社라는 항일운동단체에서 「韓族新聞」을, 1913년 7월에는 新興學友團에서 「新興學友報」를 창간하였으며, 이밖에도 북간도 지방 靑年親睦會에서는 「靑年」이라는 月刊雜誌를, 大東協新會에서는 「大震」이라는 月刊誌를, 그리고 기독교우회에서는 「기독교교우회보」를 발행함으로써, 中國에서의 韓民族言論은 그 생성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에서의 韓民族僑民言論의 역사는 다른 국가 지역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늦게 시작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면 끝으로, 다른 국가지역에서의 僑民言論史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면서 中國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 IV. 他國家僑胞言論의 始源과 比較

1910년 전후, 中國에서 「懇民教育會月報」와 「大成團報」가 창간되어 韓民族言論의 역사가 시작될 당시, 美洲와 러시아 등지에서는 이미 우리 동포들에 의해 여러 개의 僑胞 신문, 잡지들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우선 각 지역별로 그 始源과 당시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1. 美州僑胞言論의 始源과 1910年頃 현황

美洲의 경우, 1904년 3월 27일 하와이에서 창간되었던 「신조신문」(新朝新聞)이 최초의 우리 僑民 신문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매월 2회씩 1년 조금 넘게 발행하다가 폐간되고 말았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다시 1905

년 5월 8일 「親睦會報」가, 6월 10일 「韓人時事」가, 12월 29일 「時事新報」가 창간되었다. 또 1907년 9월 30일에는 「自新報」가 나왔으며,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韓人合成協會에서 「韓人合成新報」를 창간하였고, 1908년 5월 23일에는 또 다시 「電輿協會報」가 나왔다.(車培根, 1979, p.55-83 참조)

한편 미국 본토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최초의 韓人團體인 共立協會(회장 安昌浩)에서 그 기관지인 「共立新報」를 1905년 11월 22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그 뒤를 이어, 南加洲 로스앤젤레스의 동북방 패사디나(Pasadena) 지역 僑民 단체인 大同保國會에서도 그 기관지인 「大同公報」을 1907년 10월 창간하였다.<sup>14)</sup> 그러나 이들 두 신문은 1909년 2월 하와이의 韓人合成協會와 샌프란시스코의 共立協會 및 로스앤젤레스의 大同保國가 통합, 國民會로 새로 발족되면서 「共立新報」이 「大同公報」를 흡수하여 하나의 신문이 되는 동시에 그 題號를 「新韓民報」로 바꾸었다. 이때 하와이의 「韓人合成新報」도 그 제호를 「新韓國報」로 고쳤다.

## 2. 露領僑胞言論의 始源과 1910年頃 현황

러시아 지역의 경우는, 1908년 2월 26일 블라디보스톡(海蔘威)에서 창간된 「海朝新聞」이 최초의 우리 교포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1905년 日帝의 강제에 의한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건너갔던 수 많은 우리 동포들 중 한 사람인 崔鳳俊이 張志淵(「皇城新聞」前主筆)을 주필로 초빙하여 창간한 日刊 國文紙였다. 그러나 그해 5월 26일 폐간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1908년 그곳 교민단체인 國民會에서 그 기관지로 「大同共報」를 창간, 매주 2회(일요일과 수요일) 발행하였다. 이 신문은 1910년 8월 18일 제호를 「大同新報」로 改題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 10일 日帝의 외교적 농간으로 인한 러시아 總督의 명령에 의하여 정간되었다가 다시 복간되지 못하고 말았다.

14) 大同保國會는 1905년 12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동북방 패사디나(Pasadena)에서 창립된 大同教育會를 1907년 1월에 개편한 단체로서, 張景이 지도자였는데, 公立協會의 창립 초기에 安昌浩와 대립한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음. 그러나 이 단체는 1910년 2월 10일 國民會에 통합되면서 大韓國民會로 개칭되었음(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Reedley, Calif., 1959, pp. 89-90).



露領 沿海州의 이들 교포신문들은 韓國에도 널리 배포되었는데, 매호마다 격렬한 抗日救國 論說들을 게재, 애국지사들의 피를 끓게 하였다. 그러자 日帝朝鮮統監府는 이들 신문의 국내배포 금지를 위해 1907년 7월 제정했던 新聞紙法을 이듬해 4월 다시 뜯어 고쳐, 그에다가 해외 교포 신문들의 국내 발매와 반포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넣었다.<sup>15)</sup>

그리하여 韓國에 들어 오는 교포지들을 마구 압수했는데, 「海朝新聞」의 경우, 1908년 4월 新聞紙法 개정 이후 2개월 동안 日警에 압수된 部數만도 1천5백69부나 되었다. 한편 「大同共報」는 1909년 한해 동안 57건에 2천235부나 압수되었는데, 이 신문은 당시 연해주 거주 4만6천여명의 僑民을 물론, 만주, 美國 및 멕시코 지역까지 배포되었으며, 韓國내에도 비밀리에 우송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이들 「海朝新聞」와 「大同共報」 등은 물론 만주 延邊 지역에도 배포되었는데, 이들 신문도 그 곳 우리 동포들이 「懇民教育會月報」와 「大成團報」 등을 창간하는데 커다란 刺戟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在中國日文紙의 始源과 1910年頃 현황

위에서 보듯이,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 의해 「泰東新報」, 「懇民教育會月報」와 「大成團報」가 창간될 당시, 美洲와 러시아 등지의 우리 僑民들은 이미 여러 개의 신문, 잡지들을 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비하면 中國의 韓民族言論의 시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15) 新聞紙法 改正에 관한 件(법률 제8호): 제34조 “外國에서 발행한 國文 或 國漢文 又は 漢文의 新聞紙와 又は 外國人이 國內에서 發行한 國文 或 國漢文 又は 漢文의 新聞紙로 治安을 妨害하며 又は 風俗을 壞亂함으로 認하는 時는 內部大臣은 該新聞紙를 內國에서 發賣頒布함을 禁止하고 該新聞紙를 押收함을 得함.” 제35조 “第三十四條의 禁止를 違反하여 新聞紙를 發賣頒布한 內國人은 三百圓 以內 罰金에 處함.” 제36조 “內國人이 第三十四條를 依하여 發賣頒布를 禁止된 事를 知하고 該新聞紙를 輸送하며 又は 配付한 者는 五十圓以內 罰金에 處함.”

## 1) 在中國日本人 日文紙의 始源

이러한 느낌은 在中國日本人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들게 된다. 그렇다면 日本人들은 언제부터 中國에서 저들의 신문,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 의해 「懇民教育會月報」와 「大成團報」가 창간될 즈음인 1910년경의 그 현황은 어떠했는가?

참고로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는데, 在中日本人들에 의한 日本文 신문들은 이미 18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 신문은 당시 上海에서 修文書館을 경영하던 松野平三郎이 1890년 창간한 「上海新報」였는데, 이는 週刊商業紙로서 정가는 1부당 10文이었다.<sup>16)</sup> 이에 이어, 1892년에는 또 하나의 日文紙인 「上海時報」가 上海日本青年會에 의해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 신문과 위의 「上海新報」는 모두 1년도 못되어 폐간되고 말았다.

그 다음 1894년 「上海週報」라는 日文紙가 다시 나왔다. 이 신문은 上海乍浦路共同活版所에서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주로 淸·日 양국간의 商況을 다루면서 日淸貿易의 확장을 위한 목탁임을 자처하였다. 그런가하면 日本人들은 中文紙도 발간하였는데, 그 최초의 것은 1894년 역시 上海에서 창간한 「佛門日報」였으며, 主筆은 日本人 佐野則吾였다.

## 2) 1910年頃代 日文紙들의 實態

1895년 淸日戰爭에 승리한 日本은 중국 대륙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20세기로 들어서면서 在中日本人들의 신문도 급격히 증가, 1903년부터 1910년까지 7년 사이에만도 무려 17개가 중국 땅에서 새로 창간되었다. 이들을 보면 <표 1>과 같은데, 特記할 것은, 이들 17개 중, 13개가 滿洲 지역에서 나왔다는 사실로서, 이는 곧 日帝가 滿洲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6) 중국에서 발행된 日本人 신문들에 관한 자세한 것은 車培根, 『中國近代言論史』(서울: 나남, 1985)를 참조할 것.

&lt;표 1&gt; 1903-1911年 中國에서 창간된 日文紙一覽

| 地域 | 題號      | 創刊   | 發行地 | 備考                 |
|----|---------|------|-----|--------------------|
| 華北 | 北支那每日新聞 | 1903 | 天津  | 1910년 「天津日報」로 改題   |
| 華南 | 上海週報    | 1903 | 上海  | 竹川藤太郎 창간           |
|    | 上海新報    | 1903 | 上海  | 1904년 「上海日報」로 改題   |
| 華中 | 漢口日報    | 1907 | 漢口  | 岡行七郎 창간            |
| 滿洲 | 遼東新報    | 1905 | 大連  | 1927년 「滿洲日報」로 改題   |
|    | 滿洲日日新聞  | 1907 | ”   | 1927년 「滿洲日報」에 합병   |
|    | 滿洲新報    | 1909 | ”   | ”                  |
|    | 南滿日報    | 1908 | 瀋陽  | 1912년 「奉天日日新聞」로 改題 |
|    | 瀋陽每日新聞  | 1908 | 遼陽  | 渡邊德中 창간            |
|    | 長春日報    | 1909 | 長春  | 1932년 「新京日報」로 改題   |
|    | 滿洲新報    | 1908 | 營口  | 岡部次郎 창간            |
|    | 安東新報    | 1906 | 安東  | 1912년 「安東每夕新聞」과 합병 |
|    | 滿韓日報    | 1907 | ”   | 野口多內 창간            |
|    | 安東時報    | 1907 | ”   | 金村長 창간             |
|    | 滿洲實業新報  | 1907 | ”   | ”                  |
|    | 安東每夕新聞  | 1908 | ”   | 1908년 「安東新報」에 병합   |
|    | 東邊時報    | 1908 | ”   | 金村長 창간             |

滿洲 지역에서 처음 나온 日文紙는 1905년 11월 5일 大連에서 南滿鐵道會社의 지원 아래 未永純一郎이 창간한 「遼東新報」였다. 이를 뒤이어 大連에서는 1907년 11월 3일 또 하나의 日文紙인 「滿洲日日新聞」이 星野錫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은 1927년 위의 「遼東新報」와 합병, 「滿洲日報」로 되었다.

한편 安東에서는 1906년 「安東新報」를 시작으로 1907년에는 「滿韓日報」, 「安東時報」, 「滿洲實業新報」가 나왔으며, 1908년에는 다시 「東邊時報」와 「安東每夕新聞」이 창간되어, 2년 동안 6개 日文紙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安東每夕新聞」은 1912년 「安東新報」에 합병되었다.

이밖에 滿洲의 다른 중요 도시에도 모두 일본 신문들이 나타났다. 遼陽에서는 1908년 「瀋陽每日新聞」(渡邊德中 창간)이, 瀋陽에서는 1912년 「南

滿日報」(1912년 「奉天日日新聞」로 改題)이, 營口에서는 1908년 「滿洲新報」(岡部次郎 창간)가 각각 창간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는 北滿 長春에서도 日文紙들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첫번째는 「長春日報」였다. 이 신문은 1917년 「北滿日報」로 제호를 고쳤다가 1932년 日帝가 滿洲國이라는 괴뢰정부를 세우고 그 수도를 長春으로 정하면서 그곳 이름을 新京으로 고치자, 「長春日報」로 그 제호를 「新京日報」로 바꾸어 日帝의 喉舌 노릇을 하였다.

日帝는 이상에서 보듯이, 1900년대 초부터 滿洲 지역에 들어와 신문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비해 우리 동포들에 의한 신문의 발행은 다소 늦은 感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도 1909년 「懇民教育會月報」와 1910년 「大成團報」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 「韓族新聞」, 「新興學友報」, 「青年」, 「大震」 등의 각종 잡지와 신문들을 넘으로써, 1918년까지는 韓民族言論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수 많은 신문, 잡지들을 창간, 抗日救國鬪爭에 앞장 서게 되었다.

## VI. 結言: 他研究를 위한 提言

本考에서는, 序頭에서 말했듯이, 中國에서의 우리 韓民族言論의 始源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떤 것이 그 嚆矢였다고 못박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다만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정리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史料들의 부족 때문에 어떤 것이 嚆矢라고 못박기 어려우나, 근대언론의 시원으로는 1908년이나 1909년 초에 上海에서 나온 「泰東新報」나 1909년 9월 滿洲 吉林省 局子街(現 延吉市)에서 창간된 「懇民教育會月報」를 잡되, 신문언론의 효시로는 1910년 7월 1일 역시 局子街에 나온 「大成團報」를 보는 것이 타당할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견해인데, 왜냐하면 「皇城新聞」의 논설(1909. 2. 17일자 '我國報館의 種族')과 「震光」誌 창간호(1934. 1)에서 언

급한 「泰東新報」에 관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를 中國韓民族言論의 시원으로 보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國韓民族言論의 시원을 論하려면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泰東新報」에 관한 자료 발굴과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本考에서는 中國韓民族言論의 시원 그 자체만 論했을 뿐, 왜 중국에서는 美洲와 러시아 등지에 비하여 우리 僑胞의 신문, 잡지들이 늦게 나타나게 되었느냐에 관한 論議는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군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 국내의 많은 言論史 학자들도 우리의 海外僑胞言論史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그간에 이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방면의 연구가 너무 輕視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海外僑胞들의 言論史도 깊이 있게 연구, 그 결과도 포함시켜 나가면서 우리 韓國言論史를 폭넓은 시각에서 집대성해 나가야 할 줄 안다.

<부록> 「皇城新聞」 논설: “我國報館의 種族”

- 1909년 2월 17일자 2면 -

英國前大臣 波爾克氏가 嘗於下議院에 在ᄃ야 報館記事의 席을 指ᄃ야 曰 此는 貴族과 敎會와 平民 三大種族外에 更히 絶對勢力이 有ᄃ는 第四種族이라 ᄃ얏고 又西彦에 曰 報館者는 國家의 耳目과 舌喉이오 人群의 鏡이오 文壇의 王이오 將來의 燈이오 現在의 糧이라 ᄃ얏스니然則報館의 種族이 固는天地間에 絶對ᄃ는 勢力과 重大ᄃ는 責任이 有ᄃ는者라 報種의 興旺이 卽國家의 興旺이오 報紙의 發達이 卽民族의 發達이니 彼歐美列強의 報館이 數萬種에 達ᄃ는者로써 觀ᄃ면 其國家와 民族의 程度를 可以測知ᄃ지로다

惟我大韓世界에 現在報館의 種族을 查閱ᄃ건디 國內에는 本皇城及帝國, 國民, 大韓, 京鄕은 日報와 週報의 屬이오 大韓協會, 西北, 畿湖, 湖南, 敎育은 月報의 屬이니 凡十二種이오 海外에는 東京의 大韓學報, 布哇의 合成, 韓人敎會, 桑港의 共立, 大同, 海港의 大東, 上海의 泰東이니 凡七種이라 其他韓半島, 大東學報, 女子指南 等屬은 乍生施夭ᄃ야 命運이 短促ᄃ얏도다 然則我二千萬民族社會에서 報館의 種族이 内外를 總計ᄃ야 此數가 只有ᄃ니 可謂萌芽가 始茁이오 幼穉가 方長ᄃ는 時代어늘 恒常 踐踏과 霸輓을 被ᄃ야 可憐可哀의 生活中에 長在ᄃ니 엇지 絶對ᄃ는 勢力을 養成ᄃ며 重大ᄃ는 責任을 擔負ᄃ는 能力이 有ᄃ리오

雖然이나 此九個 種族도 十年以前의 程度와 比較ᄃ면 實로 進步라 謂ᄃ지니 從茲以往으로 繼續增進ᄃ면 我二千萬民族社會內에서 幾百個報館의 種族이 産出ᄃ는 期望이 有ᄃ는 것이오 報館의 種族이 日益繁衍ᄃ는 境遇이면 我國家와 民族의 文明程度도 大有可觀ᄃ지니 此는 我二千萬同胞가 惟是報館의 種族을 同情愛好ᄃ며 同力維持ᄃ함에 在ᄃ고 他에 不在ᄃ는 것인 즉 我同胞는 現在 報館의 景況을 對ᄃ야 如何ᄃ는 觀念이 有ᄃ는가 報種의 興旺이 卽國家의 興旺이오 報紙의 發達이 卽民族의 發達이니 아모쓰록 同情愛好ᄃ며 同力維持를 得ᄃ야 我大韓의 報館種族도 將次絶對ᄃ는 勢力을 養成ᄃ며 重大ᄃ는 責任을 擔負ᄃ는 程度에 得達ᄃ기로 奉此心香ᄃ야 虔祝于上帝ᄃ노라.

## &lt;참 고 문 헌&gt;

- 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 및 延邊朝鮮族自治州政協文史資料委員編(1993). 『吉林朝鮮族』.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金良善(1967).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白山學報』 제 3호.
- 金仁哲. 「延邊第一個社會團體: 墾民會」, 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 및 延邊朝鮮族自治州政協文史資料委員編(1993), 『吉林朝鮮族』 (第二篇 戍邊衛國).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金正明編(1964). 『日韓外交資料集成』. 東京: 南堂書店.
- 『東北人民革命鬪爭史』(1960). 中國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大韓每日申報』 1908. 3. 14. ‘上海刊報’.
- 朴文一. 「동북조선거류민들의 사립교육운동과 그 역사적 역할: 1906-1919 기간」, 徐紘一, 東巖 편저(1993), 『間島史新論(上)』. 서울: 우리들의便紙社.
- 朴昌昱, “국민회를 론함: 1919-1920 국민회역사작용을 위주로 하여,” 徐紘一, 東巖 편저(1993), 『間島史新論(上)』. 서울: 우리들의便紙社.
- 『延吉廳同志呈所管各事宜選具清冊』中 “延邊地區檔案史料選編之一”.
- 延邊朝鮮族自治州保管書類, 『李同春等呈請設立報館』.
- 朝鮮族簡史編寫組(1986). 「日本外交年表及主要文書」, 『朝鮮族簡史』. 中國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_\_\_\_\_ (1986). 「日本外交文書」, 『外務省警察史』(間島部分). 『朝鮮族簡史』. 中國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_\_\_\_\_ (1986). 『朝鮮族簡史』(漢語版).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_\_\_\_\_ (1986). 『朝鮮族簡史』(朝文版).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中國 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番羽譯室編(1981). 『近代來外國人名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震光』 창간호(1934. 1. 25.), ‘震光創刊所感’.
- 車培根(1979). 「布口圭韓僑新聞史略攷」, 『新聞學報』 제12집.
- 崔起榮(1991). 『大韓帝國時期新聞研究』. 서울: 一潮閣.
- 『皇城新聞』 1908. 3. 13. 雜報 ‘上海刊報’.